

## 임채영 목사의 참 믿음의 여정

### 8강 온전함의 결말 : 기다림

이제 야고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보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혁명적인 구원의 사건.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망도, 죄도, 율법도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는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이 심어진 말씀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인내'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 1. 온전함을 향한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앞의 상황에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이 누구에 의해 더 고생스러운가 하면 부자들의 착취로 인해 더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정당한 품삯이라도 주면 나올 텐데 가난한 자의 품삯마저 착취하는 부자들로 인해 고생이 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세상살이죠. 이 정도 당했으면 쫓겨하고 일어서라고 해야 합니다. 힘을 규합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길이 참으라'입니다.

이 "참는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만 6번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참는다'든지 '인내한다'로 번역된 용어들이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7절, 8절, 그리고 10절까지 네 번에 걸쳐 나오는 '마크로썬메오(μακροθυμέω)'와 11절에만 두 번 사용되고 있는 '히포메노'(ὑπομένω)'입니다....먼저, 마크로썬메오....별받아 마땅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그 노하심을 참는다...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품이 참는 것입니다.....그런데 참으라는 말이 11절에 오면서 인내하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물론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어쩔 수 없어서, 저항할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우리에게 분명하고 소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기에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어요.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강림하시기까지' 여기에서 '...까지'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것을 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 윤회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간을 직선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기에 '그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 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하다가 우연히 가서 닿은 것이 '그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시간이라는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아야 하는 시계가 있어요. 보통 시계를 보면 언제나 현재의 시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현재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지금이 몇 시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모래시계에 모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모래는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고, 누구에게나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 2. 그리고 이 인내를 농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세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소출이 나올 때까지 농부는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른 비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면 늦은 비도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마지막에 귀한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귀하다는 뜻은 영광스럽고, 명예롭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출' 또는 '열매'를 말할 때 풍성한 열매, 풍성한 소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 '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귀한'이라는 단어는....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것이 귀한 열매의 의미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인내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는 약속을 받았습시다. 자라기 시작한 씨앗처럼,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무엇을 받았습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시작되고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비밀은 씨가 심겼고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씨앗을 보

세요. 작고 불품없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정해진 유전자가 있어요. 곧 정해진 목적, 온전한 상태에 대한 그림과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많은 시간의 흐름에서 스스로 변화되면서, 그 모습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꽃으로, 열매로....이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시간은 내편입니다. 이 시간만 참으면 귀한 열매가...

그리고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열매만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기상 현상인데요.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하기 전, 11월 전후에 내리는 비이고요. 늦은 비는 추수 전 3, 4월경에 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농부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실제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멀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공화로 찾아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삶의 순간순간에....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 3. 이 '위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이어지는 8절도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라는 말은 '여러분도 역시'라는 말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며, 중간에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드디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결말을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뿐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어요. 이 위로가 없이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에서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은 '스테릭사테(στηρίζατε)'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그 날을 준비하며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나뉘진 마음으로, 두마음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에서 나오는 싸움을 피할 수 있고, 외모로 판단하는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그 이유는....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강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παρουσία)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는 보통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는구나, 엄청나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파루시아는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

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할 때 길게는 재임을 의미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시더라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를 영어로 ‘at hand’라고 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손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장은 결국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 야고보의 지적처럼...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결국 주님의 강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믿음은 인내입니다.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뺀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있기에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참으며, 성실한 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제가 없는 미래는 공허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현재 없는 미래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닌지...그래서 신앙에 힘이 없어요.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라는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가시고기'의 저자는 오늘이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수의 남은 5분은 50년보다 소중합니다.

미래학과 종말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미래학이란 과거에 있던 일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미래학의 결론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저 앞에 있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현재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역사관은 항상 소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보다 깊게 보다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철학자 하이디 칸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계산적사고 (calculating thinking)' 즉 이해타산적인 사고다. 또 하나는 '영감적인 사고 (inspirational thinking)'로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사고입니다. 즉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 4.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를 들고 있어요. 옴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그런데 옴기를 보시면 과연 옴이 인내했는가? 의문이 들어요. 정말 옴이 끝까지 불평하지도 않았고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는가? 옴기에 나타난

욥의 모습을 보면, 물론 1장과 2장을 보시면....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 인내와는 거리가 멀어요. 극심한 고난,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합니다. 욥기 10:18절부터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 않고 숨겨/  
태어나지도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나의 수명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좀 내버려 두소서. 잠깐만이라도 밝은 날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도 성경이니까 이 정도로 표현한 거지요 이걸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할 말 다하고 있어요. 불평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범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어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과 쓰디쓴 아픔들이...과연 이것이 인내인가요? 그럼에도 성경은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인내가 뭘까요?

결국 욥의 인내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토로하고 상대했던 인내입니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비난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고난을 그대로 끝까지 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인내라고 인정...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를 아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내란 나의 인내가 아닙니다.

## 5. 이 '인내'의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주의 결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욥의 인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이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의 결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에요....욥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말....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욥에게 가져다준 결말은 무엇일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결론을 준비하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결말....해피엔딩....이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해 우리의 결론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기에...우리도 인내하며 참아야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하나님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사문학에서 이야기가 우여곡절과 반전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행복하게 끝맺음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전 근대적인 서사양식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현대 소설에서는 통속 소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영화 '접속'을 보면 남자주인공이 해피엔드란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여자주인공이 왜 그런 아이디를 쓰느냐고 이유를 묻자. 그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없는 말 같아서....' 이것이 이유였어요. 사람들이 소설 속에서라도 해피엔딩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이기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피엔딩은 사필귀정, 권선징악의 효과를 기대하는 작가의 의도된 결말처리 방식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된 결말처리 방식'입니다.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말을 알려 주셨어요. 천국에 관하여, 영생과 구원에 관하여....이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